

여성의 욕구 및 자아존중감과 성형태도에 관한 연구

전경란* · 이명희

성신여대 의류학과 박사과정* · 성신여대 의류학과 교수

본 연구는 여성의 욕구, 자아존중감, 신체만족도와 성형태도와의 관계를 밝히고, 이들 변인에 대한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며, 성형태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 대한 인과관계를 조사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욕구 측정은 황정규가 제작한 표준화 검사 중에서 과시, 지배, 성취욕구의 3개 변인을 선택하였고, 자아존중감은 Rosenberg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신체만족도와 성형태도는 5점 Likert 척도로서 각각 14문항과 19문항을 사용하였다. 성형태도 척도는 본 연구를 위하여 새로이 제작하였으며, 성형비밀, 성형가치, 성형동조, 성형비용, 성형위험수용의 5개 차원으로 구성되었다. 인구통계적 변인은 연령, 직업, 학력, 사회계층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피험자는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공주시에 거주하는 대학생, 사무직, 서비스직, 주부집단의 10~40대 여성으로서 총 813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욕구는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 20대 전반이 가장 높았고, 대학생은 특히 과시욕구가 높았으며, 전업주부는 다른 집단보다 욕구가 낮았다. 자아존중감은 학력 및 사회계층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 대졸 이상의 여성과 상류층이 자아존중감이 가장 높았다. 신체만족도는 서비스직이 가장 높았고 비취업주부가 가장 낮았다. 연령에 따라 성형가치, 성형동조, 성형위험수용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성형가치는 20, 30대가 40대보다 높았고, 성형동조와 성형위험수용은 20대가 가장 높았다.

욕구와 성형태도와의 관계에서는 지배욕구와 과시욕구가 높은 여성이 성형가치, 성형동조, 성형비용, 성형위험수용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자아존중감과 신체만족도는 성형태도와 부정적인 관계를 보여 자아존중감이 높고 신체만족도가 높은 여성은 성형에 대하여 동조하지 않으며 성형

비용을 많이 지불하고 싶어하지 않았다.

여성의 연령, 사회계층, 욕구, 자아존중감, 신체만족도가 성형태도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조사한 결과, 성형동조에는 신체만족도(-), 과시욕구, 자아존중감(-), 지배욕구가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R^2=.132$). 연령과 사회계층은 신체만족도를 통하여 과시 및 지배욕구, 자아존중감, 성형동조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연령과 사회계층은 과시욕구와 지배욕구를 통하여서는 성형동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나 신체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을 통해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적고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서 다양한 욕구가 강한 여성은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이상적인 외모와 동일시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게 작용하여 성형동조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연령이 많고 사회계층이 높고 자신에게 만족하는 사람은 주관적 가치판단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성형동조가 낮다고 볼 수 있다.

성형비용에는 지배욕구, 자아존중감(-), 신체만족도(-)가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고($R^2=.111$), 성형위험수용에는 지배욕구, 자아존중감(-), 성취욕구(-), 신체만족도, 사회계층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R^2=.125$).

결론적으로 여성의 욕구, 자아존중감, 신체만족도는 성형태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중요한 특성이며, 욕구가 높은 여성은 성형수술과 같은 신체변형에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